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영성 목표와 활동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닮게 지으신 이들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 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과 복자들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4년 1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영성 목표와 활동

— 목 차 —

-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님 메시지
 -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 들어가면서
- ① 2027 서울 WYD의 목표와 영적 가치
 - 1.1 2027 서울 WYD의 목표
 - 1.2 2027 서울 WYD를 위한 영적 가치 제시의 신학적 근거
- ② 2027 서울 WYD를 통해 선포하는 영적 가치들
 - 2.1 영적 가치들 : 진리, 사랑, 평화
 - 2.2 영적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의 시노드적 회심과 그 방법 : 만남, 선교, 순례, 사목
- ③ 영적 가치들에 따른 준비 단계 사목활동
 - 3.1 2027 서울 WYD를 위한 활동
 - 3.2 영적 가치들에 따른 준비 단계 사목 활동
- 부록
 - 2027 서울 2단계 WYD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지역 조직위원회 세부 조직도
 - 준비 단계 봉사자 조직도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장 메시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16, 3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말씀을 2027 서울 WYD의 주제 성구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며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으로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범과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비록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사랑을 실천하라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도록 이끄는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용기’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6,33)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오로지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별사 가운데 이미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는 재물을 축적하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높은 지위 또는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거나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얻는 평화는 일시적인 안정감일 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더 큰 상실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진리를 향해 걷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에 온갖 거짓과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 너머로 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그리스

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던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복음의 기쁨』 3항)하셨습니다.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7 서울 WYD의 핵심 주제성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믿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일치하여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용기 가득한 선교사’로 거듭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아갑시다.

2027 서울 WYD는 단순한 국제적인 행사 또는 사목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불태울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베푸신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이며,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형태의 악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되도록, 특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의 쇄신을 위해 함께 모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겨냅시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9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장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들어기면서

본 책자는 2027 서울 WYD를 통해 추구하려는 영적 가치를 기반으로 목표와 계획,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사목 활동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2027 서울 WYD의 주제성구에 바탕을 둔 목표와 영적 가치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WYD를 개최하는 온 교회의 취지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은 WYD를 통해 선포하는 구체적인 영적 가치들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특별히 2027 서울 WYD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주제 성구 아래 고유한 대주제, ‘진리’, ‘사랑’, ‘평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대주제들은 특별히 2027년이라는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 특별히 요청되는 주요한 가치들입니다. 이를 한국의 고유한 영성을 기반으로 2027 서울 WYD를 통해 널리 알리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대주제에는 각각의 표어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가치들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구체적으로 증거해야 할 복음에 기반을 둔 영적 가치들 제시합니다.

3장은 영성 비전에 따른 준비 단계와 본대회 활동 목표 및 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2장에서 다룬 9개의 소주제 아래 어떠한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각 활동의 목표 및 계획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7 서울 WYD만의 고유한 정신을 준비 단계와 본대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자가 2027 서울 WYD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사목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1. 2027 서울 WYD의 목표와 영적 가치

1.1. 2027 서울 WYD의 목표

많은 사람들이 WYD(세계 젊은이의 날, 세계청년대회)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이 바로 WYD의 발명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으로부터 1950년이 지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교회는 구원의 특별 희년을 지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다양한 희년 행사 가운데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젊은이들의 모임을 조직하기를 바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약 6만 명 정도가 참여하리라 예상했지만,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후 1985년, UN은 ‘국제 젊은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교회의 관심을 드러내시고자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로마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30만 명이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곳곳의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리교육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두 번의 모임 후, 도대체 무엇이 이런 큰 반향을 일으켰는가, 젊은이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또한 미래를 바라보려 하며, 그들의 약속을 새롭게 그리고 굳게 하고자 하는 열의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World Youth Day)를 제

“이 응답은 이날을 경축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로마로 순례 온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분을 찾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류 역사 안에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계시다는 진리의 충만함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 1988년 3월 27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강론, 제3차 세계 젊은이의 날

1992년 폴란드 체스토코바에 모인 WYD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CNS file photo)



정하시며, 이날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기념할 수 있도록 정하시어 각 지역 교회에서 실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날을 제정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20년 11월 22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미사를 마치면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거행되었던 세계 젊은이의 날을 2021년부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연중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도록 발표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오늘날 각 지역교회는 매년 각자의 교구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거행(교구 단계)하고, 3~4년에 한 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황님과 함께 WYD를 거행(국제 단계)합니다.

이상의 역사적 흐름에서 WYD의 참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WYD는 한순간 치루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동행이고 일치와 표징이며 희망의 선포입니다. WYD를 통해 보편 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지역의 청년들은 다시금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보편 교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참된 선교사로서 세상 각지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지역이 달라 한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교 청년들은 교회의 영적 정신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둘째, WYD는 그리스도교인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비그리스도교인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목표, 즉 참 행복과 영원한 희망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진정으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종교적 회심이 아닌, 세상의 공동선과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내적 움직임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안에서 청년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교회는 기대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국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희망과 사랑에서 온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 나가길 희망합니다.

1.2. 2027 서울 WYD를 위한 영적 가치 제시의 신학적 근거

WYD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영적 움직임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WYD의 가치 비전은 과연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젊음을 사셨고, 이를 통해 젊음의 시기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공생활 중에 자주 젊은이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자애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들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또 충만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동반하셨습니다(마르 10,13-16; 마태 19,16-26; 루카 7,11-17 참조).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젊음을 닦도록 초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젊은이들은 진실과 자유를 탐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꿈을 향해 투신하며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충만한 삶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음은 하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젊음을 무의미하게 허비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은총에 열매를 맺고자 노력할 때, 젊음은 그들에게 충만한 생명으로 이끄는 선물이 됩니다. 바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
십시오.”*

(1티모 4,12)

한편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수많은 유혹과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흔히 기존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서 그렇다.”(『사목현장』 7항) 오늘날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수많은 고통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을 마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발견한 젊은이들의 슬픔과 고뇌를 전해주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문헌에 잘 담겨 있습니다(72-102항 참조). 종교뿐만 아니라 인종,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서 젊은이들은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범죄와 폭력으로 삶을 희생당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소외와 사회적 배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경제 제도들은 전쟁과 무역 분쟁들을 일으켜 불평등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인류 공동체, 특히 청년 세대를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현대 문화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아닌 그보다 덜 중요한 가치들을 상위에 놓게 만드는 가치 전도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학적 기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디지털 문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현상들이 일으킨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 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WYD는 단순히 가톨릭 청년 신자들만을 위한 종교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 교회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75항) 가톨릭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고민과 고뇌를 경청하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WYD를 통해 전세계 젊은이와 함께 나누고 구현하려는 복음에 기반을 둔 보편적 영성 가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2027 서울 WYD를 통해 2000년을 이어온 그리스도교 신앙과 문화에 담긴 인간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인간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 특히 오늘날 온 인류가 직면한 인간학적,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참된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가르치고 고백하는 ‘인간다움’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영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영적 가치는 한국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독창성에 바탕을 둔 가치들입니다.



2. 2027 서울 WYD를 통해 선포하는 영적 가치들

주제
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가치
비전

교황님과 모든 가톨릭 젊은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 젊은이에게
복음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며
이를 통해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생명이 충만한 인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제안하는
보편적인 영적 가치들

대주제

진리

사랑

평화

표어

온갖 형태의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
“진리를 찾는 용기”

모든 피조물의
생명 존중을
지키는 사랑의 문화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온갖 형태의 폭력에
굴하지 않는 평화
“평화를 이루는 용기”

소주제

신앙 | 순교 | 선교

생명 | 가정 | 생태

화해 | 정의 | 공동선

사목
방법

만남 | 선교 | 순례 | 사목
WYD의 영적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교회의 시노드적 회심과 태도

2.1. 영적 가치들

1 진리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세속 정신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중 (...) 첫째는 상대주의라는 거짓된 빛입니다. 상대주의는 진리의 빛을 흐리게 하고, 우리 발이 딛고 선 땅을 뒤흔들며, 혼란과 절망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상대주의는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이는 어제와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궁극의 토대를 두고 있다.”(「사목 현장」, 10항; 히브 13,8 참조)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상대주의란 그저 하나의 사고 체계가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되는 상대주의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당시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 연설>, 2014.8.17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므로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사조입니다. 다원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이 상대주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탈진실(Post-truth), 그리고 온갖 형태의 거짓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사랑과 이해라는 이름으로, 상대주의적 관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용인하며 심지어 침묵하게 됩니다. 이에 「사목 현장」은 “사회, 정치, 종교 문제에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사랑과 호의가 진리와 선을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28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교회 윤리의 기초에 관한 회칙인 「진리의 광채」에서 특별히 이 상대주의를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려’(로마 1,25)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은 흐려지고, 진리에 복종하려는 그 의지는

약해집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내맡기고서(요한 18,38 참조), 진리와 동떨어진 거짓 자유를 찾아 헤맬니다”(1항).

2027 서울 WYD는 온갖 형태의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젊은 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분별하고 진실을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진리를 향해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첫 번째 대주제 “진리”에서부터 뺀어 나온 소주제로 “신앙”, “순교”, “선교”를 선정하였습니다. 표어와 소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갖 형태의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 “진리를 찾는 용기”

1-1 신앙

-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매력을 삶 속에서 추구하며 그분의 모습에 근거하여 진실을 선택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 그리스도를 만나 진실을 발견하고 목숨을 바쳐 살아갔던 한국 천주교회 신앙 선조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삶과 신앙을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성찰하여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 ① 성찰 :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기억과 성찰
 - ② 증거 :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앙인들이 그들이 마주한 사회구조적 ‘거짓’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신앙 안에서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는지 식별
 - ③ 열매 :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실천
 -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체험, 홍보를 통해 초기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재조명
 -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혼탁한 현실 속에서 참된 진리를 식별할 지혜와 진리를 추구할 용기를 제시

1-2 순교

• 가톨릭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곧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의 은혜, 사랑의 최고 증거”(『교회헌장』 42항)를 ‘순교’라 고백합니다. 이에 초기 한국 천주교회 신앙인들이 발견한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의 증거를 재조명하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참된 희망을 선포합니다.

- ① 성찰 : 진리에 대한 최고의 증거인 순교 개념의 토착화, 현대화, 대중화
- ② 증거 : 오늘날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백색 순교’적 삶의 모습 구체화
- ③ 열매 : 죽음을 이겨내는 삶의 의미와 희망에 대한 가치를 현대적, 대중적으로 해석하여 세상에 선포
 -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성찰할 기회와 이를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일상에서 거짓을 이겨내고 진리를 추구하며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북돋움

1-3 선교

•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 교세를 늘리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복음의 근본정신에 근거하여 인간의 가치관, 판단, 사상, 생활 방식, 사회적 문화, 제도 등을 복음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의 복음화가 궁극적 목표입니다.

•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고 노력합니다.

• 다종교 사회인 한국의 현실 속에서 종교의 참된 역할에 대한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타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합니다.

- ① 성찰 : 세상의 복음화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한 개인적/공동체적 차원, 내적/외적 차원의 성찰과 쇄신
- ② 증거 : 진정 복음을 살고 전하는 ‘세상을 이기는 용기 가득한 선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개인적, 공동체 차원의 노력
- ③ 열매 : 2027 서울 WYD 전후로 가톨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리와 반대되는 다양한 사상과 문화적 흐름을 진단, 식별함과 동시에 진리를 선포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

- 2027 서울 WYD의 체험과 열매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개인적, 공동체적 실천 방향 설정

2 사랑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유대, 친구,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관계와 충실한 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모든 형제들」 87항)

사랑은 결코 가톨릭 교회만의 가치가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근본적 감정이며 모든 감정의 기초이고, 대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생성됩니다. 사랑의 종류를 큰 범주로 나누자면, 즐거움에 머물며 감상적인 ‘향락적 사랑’(amor complacentiae), 자기만을 위한 선과 행복에 관심을 두는 ‘사욕적 사랑’(amor concupiscentiae), 다른 사람의 행복에 가치를 두며 모든 사물의 보전과 발전을 지향하는 ‘자애적 사랑’(amor benevolentiae)이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개인중심주의를 추구하는 현시대, 감상적이며 사욕적인 사랑을 추구함에 따라 특정 집단과 개인만을 옹호하는 폭력적인 형태의 사랑을 추구하곤 하며 이는 곧 허무주의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중 계명(마태 22,37-40)과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보여주신 보편적이고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

여 ‘자애적 사랑’을 보편적 가치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주제는 “사랑”이며 이에 속한 소주제는 “생명”, “가정”, “생태”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 소주제들을 성찰하고 실천함으로써 오늘날 젊은이들은 하느님의 ‘자애적 사랑’을 몸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주제의 표어와 소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지키는 사랑의 문화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2-1 생명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현대 사회에서 전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죽음의 문화’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원인과 죄의 뿌리는 진리나 객관적인 선과는 거리가 먼 타인과의 유대 및 연대 없이 개인주의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는 왜곡된 자유 개념에서 비롯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회의 청년들이 먼저 스스로 죽음의 문화에 무의식중에 가담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고, 부지불식간에 강요받고 있는 강력한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는 생명의 문화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 ① 성찰 :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죽음의 문화, 특히 온갖 형태로 드러나는 생명의 도구화와 생명의 인위적 조작들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
- ② 증거 : 다양한 형태의 육적,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동행
 - 단순히 생명의 중요성만을 외치는 것이 아닌 젊은이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고통을 나누는 증거
- ③ 열매 : 젊음을 악용하거나, 왜곡된 성에 대한 이해를 종용하는 사회적 강요들에 대해 저항하며 또 그러한 강요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중독으로 고통받고 젊은이들을 동행
 - 올바른 자유의 개념을 성찰하고 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윤리관을 젊은이들의 사고, 언어와 표현에 맞게 전달

- 오늘날 우리 사회, 개인이 추구하는 왜곡된 윤리관을 분석하고 그리스도교 정신 안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별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동반

2-2 가정

- 현대 사회의 가정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참된 가정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특별히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음적 가치를 공유하고 선포합니다.
- 성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랑의 노력들을 증거합니다.
 - ① 성찰 : 가정의 위기 속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동행 (원가족, 독신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동거가족, 집단가족, 동성가족 등 현대 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 안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위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가정의 참된 의미와 가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동행)
 - ② 증거 : 가족 구성원, 세대 사이의 친교와 사랑의 증거 실현
 - ③ 열매 : 젊은이들이 가정을 구성하고 아울러 가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
 -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 안에서 추구되는 사랑과 가정관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안에 숨겨진 문제와 원인을 짚어봄으로써 현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아픔을 위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의 노력에 대한 성찰
 -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교 가정관의 모범과 증거를 제시하여 올바른 사랑과 성가정에 대한 열망을 일깨움

2-3 생태

-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인류 공동체의 노력이 무엇인지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과 함께 성찰합니다. 나아가 참된 생태적 가치와 인간의 생태적 태도 변화를 선포하고 실천합니다.
 - ① 성찰 : 오늘날 환경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류 공동체의 위기와 그 원인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심', 곧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성찰

- ② 증거 : 2027 서울 WYD 준비 단계와 본대회 전체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복음적 증거이기에, 이를 위해 세계청년대회를 어떤 형태의 생태 영성을 기반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선포할 것인지 성찰하고 실천
- ③ 열매 : 생태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온 인류가 실천해야 하는 가치임을 인식하고 생태 영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를 야기하는 인간 문제와 사회적,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생태론'을 선포
 - 현대 사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 문제와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알림
 - 생태 문제가 사회의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교육하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함양
 - 2027 서울 WYD의 준비기간뿐만 아니라 대회 전후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체험하고 환경의 보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홍보하고 실천

3 평화

2025년이 평화가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 협상 테이블과 계약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 참되고 항구한 평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장 해제된 마음에 베풀어주시는 참평화를 찾아 나섭시다. 무장 해제된 마음은 곧, 내것 네것 따지지 않는 마음, 이기심을 누그러뜨리고 타인에게 기꺼이 손 뻗으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짓누르는 빛을 탐감할 준비가 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모든 이가 더 나은 세상 건설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무장 해제는 모든 이가 할 일입니다. 첫째부터 끝까지, 큰 이
 부터 작은 이까지, 부유한 사람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
 여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들 곧, “미소, 우정의 작은 몸짓, 친절할
 눈길,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경청, 선행”으로도 족합니다. 우리는 이 크고 작
 은 몸짓들을 통하여 평화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란히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처음 길을 나설 때에 비하
 여 변화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평화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 종식과 함께 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도 함께 옵니다. 새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했
 던 것보다 더 가깝고 더 형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제5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밝히고 있듯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
 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고, 또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국가나 집단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2304항 참조) 사람들 사이
 의 선의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자유롭게 소통하며, 사람들과 민족들의 존엄성
 이 중시되는 상태, 그리고 보편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형제적 사랑 등이
 없이는 세상에 평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2304항 참조) 이를 위해 2027 서
 울 WYD는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비추어, 온갖 형태의 폭력과 무자비한 행동들을 포기하고, 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태도를 성찰하고 실천하고자 합
 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회칙 「모든 형제들에게」에서 권고하는 진
 정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고 고통받는 약자들, 특
 히 이 시대 온갖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젊은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동행하고자 적극적인 평화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 번째 대주제는 “평화”이며 이에 속한 소주제는 “화해”, “정
 의”, “공동선”입니다. 표어와 소주제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갖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 평화
“평화를 이루는 용기”

3-1 화해

•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민자 문제, 인종차별, 무역과 외교를 통해 발생하는 국가 간의 소리 없는 분쟁,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갈등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고착화된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 한반도의 현실을 성찰하고 한 민족의 화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갈망과 실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① 성찰 : ‘고착화된 갈등’ 속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찰하고, 나아가 이념과 이해관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뿌리를 성찰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음적 평화의 의미와 극복의 방법에 대한 성찰
- ② 증거 :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모색 / 온갖 형태의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모색
- ③ 열매 : 북한 이탈 젊은이들과 난민들의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3-2 정의

• 화해는 비단 국가 간의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온갖 형태의 불의와 부조리, 범죄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도 행해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차원의 뿌리 깊은 악의 구조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정의의 의미를 성찰해 이를 오늘날의 언어와 표현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 ① 성찰 : 오늘날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그 원인과 뿌리들에 대한 성찰 /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복음적 원칙과 판단의 기준들을 성찰
- ② 증거 : 다양한 형태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복음적 증거는 무엇인지 성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 모색
- ③ 열매 : 다양한 형태의 폭력(납치, 착취, 조직범죄, 인신매매, 성적 학대,

정치적 이념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극도의 가난 등)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특히 이민과 난민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동행

3-3 공동선

•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존엄성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증진 시킬 수 있는 공동체적 노력을 성찰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여기서 공동선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의 공동체적 사랑의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공동선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인류 전체의 발전과 완성을 지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사회적 실체에 속하는 모든 주체의 개별적 선을 단순히 종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와 각 개인에게 속하는 공동선은 나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증대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그 효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것’”(『간추린 사회 교리』 164항)입니다. 공동선이 요구되는 분야는 실로 많지만, 특별히 2027 서울 WYD는 오늘날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을 주목합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형태의 차별과 소외, 조작과 착취를 살펴보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기술적 진보와 디지털 문화를 위해 필요한 복음적 가치를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 ① 성찰 : 오늘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곧 인간의 공동체적 차원에 대한 깊은 성찰, 특히 인류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회적, 심리적 악의 원인과 뿌리가 무엇인지 성찰
- ② 증거 : 각자 삶의 자리에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구체적으로 실천, 특별히 디지털 세계에서 자행되는 조작과 착취,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동행하여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
- ③ 열매 : 2027 서울 WYD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이 다함께 급성장하는 기술적 진보 안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진정한 형제애, 사회적 우애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선포, 증거
 - 한국의 고유한 분단 현실과 함께 국제적인 분쟁들을 조명하여 사회의 부정의와 평화에 대한 필요를 알림
 - 분단 현실 외에도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온갖 형태의 갈등을 다룸으로써 정의의 가치와 의미를 선포

2.2. 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의 시노드적 회심과 그 방법

2023 리스본 WYD 폐막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다음 WYD 개최지로 '서울'을 선포하신 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특히 2027 서울 WYD를 통해 교회가 보다 시노드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모인 젊은이들이 한국 천주교회의 청소년, 청년 사목을 젊은이의 시각에서 함께 성찰하고 쇠신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초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젊은이들은 WYD를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2027 서울 WYD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주체로 거듭나고 아울러 교회 역시 이러한 젊은이들을 동반하기 위한 방향을 아래의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4가지는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장인 서울 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로마에서 2027 서울 WYD를 준비하기 위한 1차 국제준비회의인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International Youth Pastoral Congress, 2024년 5월 23~25일)에서 밝히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젊은이들이 성찰하고 제안한 교회의 모습은 앞서 소개한 3가지 영적 가치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9가지 영적 활동들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교회의 쇠신된 모습이며 태도입니다. 젊은이들이 원래대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 서울 WYD는 ' 만남의 축제'입니다

2027 서울 WYD는 만남의 축제입니다. 젊은이와 젊은이가 만나고, 젊은이와 교회 공동체가 만나며, 젊은이와 교황님이 만나고, 젊은이와 하느님이 기쁨 안에서 만나는 장이 바로 WYD입니다. 젊은이와 모든 교회 구성원과의 만남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톨릭의 가치와 부합하며, 함께 걷는 길인 시노드 정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2027 서울 WYD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노드적 태도에 바탕을 둔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침체되어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젊은이 사목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2027 서울 WYD는 ' 선교의 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WYD가 개최되는 첫 번째 국가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WYD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과 부합합니다. WYD의 주체가 되는 젊은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이기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 서울에서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이 만난다면 종교, 문화 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한 희망의 길잡이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WYD 여정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선교의 장입니다. 안타깝게도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들은 비종교인들에게 종교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가치를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7 서울 WYD의 여정을 통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젊은이들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종교인들이 가진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2027 서울 WYD는 '희망의 순례'입니다

2027 서울 WYD는 2025년 희년의 정신을 이어가는 WYD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희년은 2023 리스본 WYD와 2027 서울 WYD 사이에 거

행되는 희년으로, 2027 서울 WYD는 준비 과정 중에 희년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에서 “하느님 은총에서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징표들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리라는 부름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을 밝히며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시대의 어려움을 읽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인 ‘희망’을 식별해 내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교황 프란치스코,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권고 말씀」, 2024.05.)는 메시지를 전하며, 희년과 WYD가 젊은이들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지속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젊은이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며, 그들이 연대를 통해 서로를 하느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장으로 초대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7 서울 WYD는 젊은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그들 곁에 다른 젊은이들이, 어른 신자들이, 교회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순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희년의 ‘희망의 불꽃’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과정으로 기능합니다.

4 2027 서울 WYD는 젊은 교회(Young Church)로 가는 ‘사목 여정’입니다

WYD의 열매는 가톨릭 교회를 젊은 교회(Young Church)로 쇄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젊음과 생기를 지닌 실제 젊은 세대와 그리스도의 젊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숙한 어른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27 서울 WYD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데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젊음은 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오랜 제도가 그 긴 역사의 여러 국면들을 거치면서 쇄신되고 젊음을 되찾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항.) 이를 위해 2027 서울 WYD는 교회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27 서울 WYD 이후에도 젊은 교회를 구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3. 영적 가치들에 따른 준비 단계 사목활동

3.1. WYD를 위한 활동

1 WYD 상징물 순례- 십자가와 성모 성화

WYD에는 늘 두 개의 상징물이 함께 합니다. 바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입니다.

1983년 ‘구원의 특별 성년’을 마치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년의 상징이었던 3.8미터 높이의 나무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후 이 ‘WYD 십자가’는 역대 개최지뿐만 아니라 개최지가 속한 대륙의 곳곳과 그 외에도 십자가를 찾는 지역을 순례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WYD 성모 성화는 ‘로마 백성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이콘으로서 2000년 로마 WYD 때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이 성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께 제자 요한을 맡기신 것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후, 이 성모 성화는 WYD 십자가의 순례 여정에 늘 함께하게 됩니다.

두 상징물은 2024년 11월 24일 바티칸에서 거행된 전달식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단에 전달되었고, 서

명동대성당에 모셔진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울대교구 청년들은 11월 29일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환영의 밤' 행사를 통해 이 두 상징물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두 상징물은 인천, 대구, 수원교구를 순례하고 해외 순례를 떠났습니다.

1-1 해외 순례(2025-2026.1)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상징물의 해외 순례는 주로 개최국이 속한 대륙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예정 중인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일본, 필리핀, 대만, 동티모르,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입니다. 1995년에 필리핀에서 열린 마닐라 대회 이후 32년 만의 아시아 개최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시아는 필리핀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가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도 등을 신봉하는 이교도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번 WYD 상징물의 아시아 국가 순례는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1-2 국내 순례(2026.2.-2027.5.)

2026년 2월부터는 해외 순례가 끝나고 국내 순례가 진행됩니다. WYD 상징물은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를 한 달에 한 교구씩 순례하며, 모든 교구가 교구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과 사랑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환영의 밤 중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모습



으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2027년 6월에는 서울대교구로 들어와 이틀에 한 지구씩 총 19개 지구를 순례하고, 그 후 한동안 정비 시간을 갖고 본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2 WYD 영적 가치 개발

2-1 청년 기초 인식 조사(2025)

교구장님의 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황님께서 제시하신 주제 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라는 말씀 안에서의 용기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됩니다. 젊은이들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갖 거짓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진리’를 찾아나갈 용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할 용기, 그리고 마침내 이를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될 참된 ‘평화’를 이 세상 속에서 외칠 용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치를 2027 서울 WYD를 향한 여정 안에서 발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2027 서울 WYD로의 여정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전문 연구가들을 중심으로 청년들과 청년 사목 전문가들의 패널 인터뷰와 설문 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내재적, 관계적, 구조적, 초월적-영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희망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청년 인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 연구 설계 및 계획,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 봉사자들의 기획 회의 모습



2-2 청년 학술 축제(2026)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자발적인 학술축제도 준비 중입니다. WYD 준비과정 봉사자 가운데 영성팀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선행된 청년 인식 조사의 결론을 참고하면서 스스로 WYD의 가치와 영성의 육화를 위한 연구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3 WYD 교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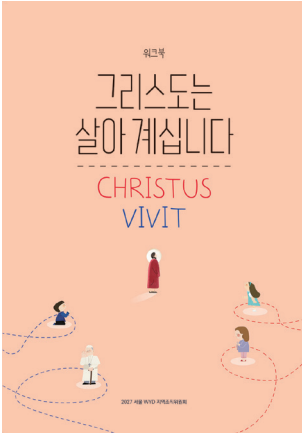
WYD는 처음부터 젊은이들을 사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WYD는 청년-청소년 사목과 교리교육의 도구로 훌륭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도 2027 서울 WYD를 통해 젊은이 사목을 쇄신하고, 그와 함께 한국 교회가 젊고 생기 넘치는 공동체로 새로 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 봉사자 기획 연수

이런 맥락에서 젊은이를 위한 교리교육은, 본대회에서 주교님들이 진행하시는 성삼일 교리교육 때뿐만 아니라, 3년의 준비기간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리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회 문헌이 2019년 4월 2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입니다. 이 문헌은, 2018년에 ‘젊은이’를 주제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이자 교황님께서 이 세상 젊은이와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시는 서한으로서, ‘젊은이’와 ‘젊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제시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젊은이에게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헌은 교회에 젊은이 사목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만나 그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조직위는 이 문헌을 바탕으로 한 교리교육과 봉사자 양성 과정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진리와 사랑과 평화라는 WYD의 영성 비전을 제시하고, 이 영적 가치들의 내면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성숙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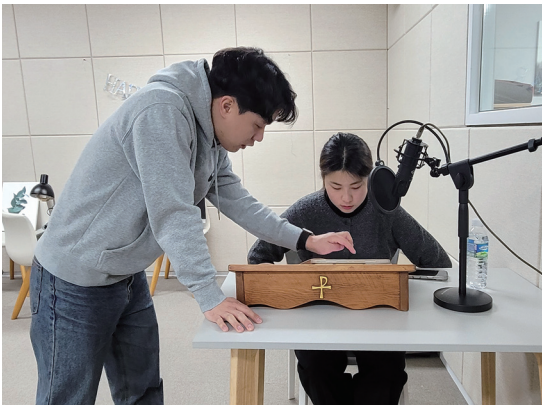
3-1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



2027 서울 WYD 조직위 사무국은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문헌을 기초로 2024년에 1차 준비 과정 봉사자 240명을 양성하고, 그 양성 과정을 참조하여 교구, 지구, 본당 차원에서 젊은이 사목과 봉사자 양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형태로 워크북을 개발하여 2025년 5월 출판 및 배부 예정입니다. 이 워크북을 토대로 조직위 차원에서는 2025년 2차 준비과정 봉사자를 양성할 계획이고, 각 본당에서도 이 워크북을 활용하여 본당

차원의 2027 서울 WYD 봉사자를 양성하고 젊은이를 사목하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이 워크북은 향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WYD의 주요 언어로도 번역되어 출판 예정이며, 외국어 사용 봉사자들 양성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3-2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오디오북



가톨릭출판사 스튜디오에서 오디오북 녹음을 하고 있는 청년

다 장애인 젊은이들 또한 함께 문헌을 읽고 나눌 수 있도록 오디오북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리교육과 영성 비전 제시라는 목표와 함께, 평화를 이루는 공동선의 가치를 직접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직위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가톨릭 성우협회 봉사자들의 동반과 더불어 청년들이 직접 육성 녹음으로 참여한 오디오북도 2025년 중 발행할 예정입니다. 2027 서울 WYD는 청년들이 쉽게 교황님의 문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

4 WYD 전례 사목

WYD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게다가 2027 서울 WYD는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처음으로 거행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조직위와 신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여정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바치기,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과 ‘기도의 날’을 중심으로 신자들에게 기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도 봉헌은 그 자체로 2027 서울 WYD에 깊이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신앙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4-1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조직위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기도문을 마련하여 2024년 1월 23일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조직위에서 매일 봉헌되며,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에서 시작 또는 마침 기도로 봉헌됩니다. 아울러 각 본당에서도 주일 청년 미사 전후 기도로 이 ‘젊은이를 위한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매 미사 전 또는 후로 이 기도를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믿게 지으신 이들이와 아들들을 태어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 저희는 그들의 고인과 아픔에 함께 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과 복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4년 1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매 베드로 대주교 인준

4-2 목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2024~)

조직위는 서울대교구를 시작으로 2024년 2월 11일부터 교구에 소속된 모든 본당과 기관, 그리고 수도회를 통하여 WYD를 위한 목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을 시행 중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신자들은 목주기도 후에 2027 서울 WYD 준비 기도문인 ‘젊은이를 위한 기도’도 바칩니다. 국내 남녀 수도회와 각 본당, 그리고 단체와 개인으로 봉헌된 목주기도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s://wydseoul.org>)를 통해 모아집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 단이 봉헌되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수원교구와 대구대교구도 목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2027 서울 WYD는 앞으로 더 많은 교구가 목주기도에 동참하여, 온 한국 교회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4-3 WYD를 위한 ‘기도의 날’(2025.1~2027.8)

조직위원장이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서울대교구 내에서 매월 넷째 주일을 ‘기도의 날’로 정하셨고, 각 본당에서는 2025년부터 매월 넷째 주일 미사 중 1대를 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향으로 봉헌합니다. 또한 매월 넷째 주일 모든 미사의 마지막 보편 지향 기도는 교구장님의 기도 지향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2027 서울 WYD 조직위 사무국에서 검토한 기도문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를 위하여’

1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를 위하여	
2월	새 학기를 맞이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새 학기 전 달
3월	젊은이를 환대하고 동반하는 교구와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사목협의회 희년
4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식목일/부활대축일
5월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을 위하여	장애인들의 희년
6월	북한 교회와 북한 이탈 젊은이를 위하여	분단 80년
7월	젊은이의 희년을 맞이하여 교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의 희년
8월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을 위하여	순례자의 희년
9월	젊은이의 성장에 동반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10월	입시와 진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대입 수능 전 달
11월	세상을 일찍 떠난 젊은이들을 위하여	위령성월
12월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성가정축일

| 2026년 '전 세계 모든 청년을 위한 기도 지향'

1월	온갖 폭력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2월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고 배척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3월	왜곡된 세속적 정신으로 이념화된 젊은이들을 위하여
4월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5월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낙태, 성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유혹 등)
6월	세대 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7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8월	이민과 난민 젊은이들을 위하여
9월	젊은이들의 올바른 성소 식별을 위하여
10월	복음을 증거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11월	종교나 인종의 문제로 차별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12월	온갖 범죄로 상처받고 이를 극복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 2027년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도 지향'

1월	젊은이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2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를 위하여
3월	2027 서울 WYD에 협력하는 정부 기관 및 사회 단체들을 위하여
4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지역 공동체(지구, 본당)를 위하여
5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한국의 모든 젊은이를 위하여
6월	2027 서울 WYD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7월	2027 서울 WYD 순례 여정을 준비하는 전 세계 모든 젊은이를 위하여

5 문화예술 사목

2027 서울 WYD 조직위는 이번 세계청년대회가 청년들의 만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를 친교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가톨릭 청년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지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젊은이의 만남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며, 진리, 사랑, 평화라는 가치가 더욱 쉬운 방법으로 젊은이에게 제시되고, 탐구되고, 공유됩니다.

5-1 2027 서울 WYD 주제가 공모전

조직위에서는 2027 서울 WYD의 의미와 주제를 담은 창작곡(작사와 작곡) 공모전을 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 실시합니다. 공모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젊은이도 참여할 수 있고, 이때 종교, 지역, 국가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모든 장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내용뿐 아니라 예술성, 대중성, 여러 언어 번역 및 율동 창작 용이성과 가창의 수월성, 합창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조직위와 함께 1차적으로 심사를 한 후, WYD 담당 부서가 속해 있는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Dicastery for the Laity, Family and Life, DFLF)의 최종 승인으로 주제가 선정됩니다. 특히 7월에 로마에서 열리는 ‘젊은이 회년’을 통해 해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가 방법의 안내는 2027 서울 WYD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3 리스본 WYD 폐막미사 때 다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발표된 후 환호하는 한국 청년들



5-2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 묵상전

갤러리 1898은 매년 '2025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을 주최하고 당선 작가들에게 동년 7월에 열리는 공모전 당선자 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직위는 갤러리 1898과 협업하여 이 전시를 2027 서울 WYD의 주제 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 묵상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에는 진리, 사랑, 평화와 같은 2027 서울 WYD의 가치 비전을 주제로 하는 묵상전도 계획 중입니다.



5-3 2027 서울 WYD 홍보를 위한 음악회와 연극공연

음악회와 연극 등의 공연은 많은 젊은이를 한데 모으고, 신앙의 유대와 공감을 나누며, 선교를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이 됩니다. 실제로 본 대회 기간에는 100개의 장소에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문화예술팀이 참여하는 500개가 넘는 YF(Youth



! '명동. 겨울을 밝히다' 희망트리를 장식하는 아이. (가톨릭 평화신문 제공)

Festival)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젊은이 축제를 준비하는 사전 행사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고, 먼저 2025년 겨울에는 음악회와 연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혜화동 성당에서 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성탄의 신비와 기쁨을 묵상하는 바흐의 성탄 오라토리오 연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성탄대축일에 명동대성당 권역에서 열리는 “명동, 겨울을 밝히다” 축제 가운데 12월 24~25일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젊은이들의 신앙을 주제로 하는 연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 WYD 준비 과정 봉사자

WYD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참여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숫자가 대단히 많아서, 이를 위해 마찬가지로 많은 봉사자가 기획, 재무, 전산, 통번역, 행사, 캠페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또한 조직위, 지역, 지구, 본당, 기관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위는 2024년 상반기에 기초연구팀 40명, 하반기에 1기 준비 과정 봉사자 220여 명을 양성하였고, 이에 더하여 2025년 상반기에 2기 150여 명, 하반기에 3기 봉사자 150여 명 양성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준비 과정 봉사자들은 지역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로 센터에서 활동하며, 이 소개 책자에서 앞서 언급된 2027 서울 WYD를 위한 활동과 앞으로 소개될 9개 주제별 활동, 그리고 2027년 본대회를 실제로 직접 기획, 준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봉사자들의 기초양성 과정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동반하는 가운데, 교황 권고 문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읽고, 이를 토대로 시노드 여정에서 개발된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으로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봉사자들은 청소년 사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봉사자 기초양성이 조직위에서만 아니라 본당 단위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직위에서 제작한 양성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워크북입니다. 이 워크북은 2024년 봉사자 양성 과정에서 얻어진 체험들과 영적 결실을 담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교황 권고 문헌을 주교재로 하면서 봉사자 양성 모임의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봉사자들은 본당 또는 지구, 지역 차원에서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❶ 기 준비 과정 봉사자 양성 수료미사(2024.12.13. 평화방송 제공)



3.2. 준비 단계 활동 - 영적 가치들에 따라

1 진리

신앙

신앙 1 2027 서울 WYD 총괄 코디네이터 주교님과 함께하는 '지구 공동체 미사'

2027 서울 WYD 총괄 코디네이터 주교님께서 지구를 방문하며 청년들과 공동체 미사를 봉헌합니다. 공동체 미사는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기에 앞서, 주교님께서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늘날 가톨릭 청소년,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7개월 간, 총19개 지구 외 약 6,000여 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주교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교를 이루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기 간 : 2024년 10월~2025년 4월(7개월)

대 상 : 교구 내 지구 대표 본당(19개)

일 정 : 공동체 미사, 주교님과의 토크쇼, 아가페 식사

주 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신앙 2 젊은이들의 희년 '1004 프로젝트'

2025년 젊은이들의 희년 1004 프로젝트

“

“제41차 세계 젊은이의 날이
어디에서 열릴지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먼저 여러분 모두를, 전 세계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의 희년을 함께 경축하기 위해
2025년 로마로 초대하려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23년 8월 6일 리스본

”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5년 희년을 기념하여 ‘젊은이 희년’에 맞추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희망의 순례자’로 로마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에서는 2025년 로마 희년 청년대회에 1004명의 청소년, 청년이 참여합니다. 여기서 ‘1004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 일 정 : 2025년 7월 27일~8월 4일(본대회 7월 28일~8월 3일)
- 장 소 : 이탈리아 로마(발대미사:7월 19일 동성고등학교 강당)
- 대 상 : 서울대교구 19개 지구별 신청자 1004명 청소년, 청년(만15~35세)
- 주 관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신앙 3 WYD 청년 연수



2027 서울 WYD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대교구 청년들의 본 대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청년들을 대상으로 WYD 청년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 연수를 통해 WY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영적 활동의 하나로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영적 역량을 키우고 본 대회의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니다.

일 정 : 2025년 3월~12월 / 총 9회 진행(1박2일)

장 소 : 성 앙베르 센터

대 상 : 만 19세~39세 청년들

주 관 : 기획사무국 행사팀

1차 청년 연수 중 '성령 안에서의 대화' 모습 (2025.3.30)



신앙 4 주님을 위한 24시간 - 양심성찰과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강복

2020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매년 사순 제4주일을 앞둔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거행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교구는 본당을 24시간 동안 개방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화해의 성사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2027 서울 WYD 조직위는 WYD를 준비하면서 서 많은 가톨릭 청년들이 사순 시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동안 양심성찰과 고해성사, 성체강복이 이어졌습니다.



- 일 정 : 1부 성체조배와 양심 성찰, 2부 고해성사, 3부 성체강복
- 시 간 : 2025년 3월 28일(금) 19:00~21:30
- 장 소 : 명동대성당
- 주 관 : 기획사무국 전례팀, 문화예술팀

신앙 5 WYD 봉사자를 위한 성모의 밤과 친교 식사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240여 명의 WYD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성모의 밤을 진행합니다. WYD 준비과정 봉사자들은 작년 말부터 여러 팀으로 나뉘어서 2027 서울 WYD를 위한 준비 단계 행사들과 본대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모



의 밤을 맞이하여,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일 시 : 2025년 5월 24일(토) 16:00~20:00
- 장 소 :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마당 및 운동장
- 주 관 : 조직위 사제단, 기획사무국 전례팀, 사목사무국 봉사자

신앙 6 젊은이를 위한 '신앙과 문화의 만남' - 지식 여정 강좌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나 인문학 및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한국 사회 내 명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과 나눔을 통해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교 영성, 성경, 신앙의 관점에서 본 과학, AI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윤리, 다양한 청년 문제, 인권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 일 정 : 2025. 9월부터 월 1회 홀수달 첫 번째 토요일 저녁
- 장 소 : 명동대성당 고틀홀
- 주 관 : 기획사무국 전략팀

| AI 전문가 베난티 수사님의 강연 현장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제공)



순교

순교 1 9월愛동행 (부제 : WYD 준비를 위한 순교자 현양 및 전구 미사)

2025년 희년을 맞이하여 교구장님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지향에 따라 순교자 성월인 9월에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9월愛동행'에 맞추어 청년들이 순례길(3코스)을 순례합니다. 청년들은 순례를 통하여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두산 성지에 모인 청년들은 한마음으로 2027 서울 WYD를 통해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전구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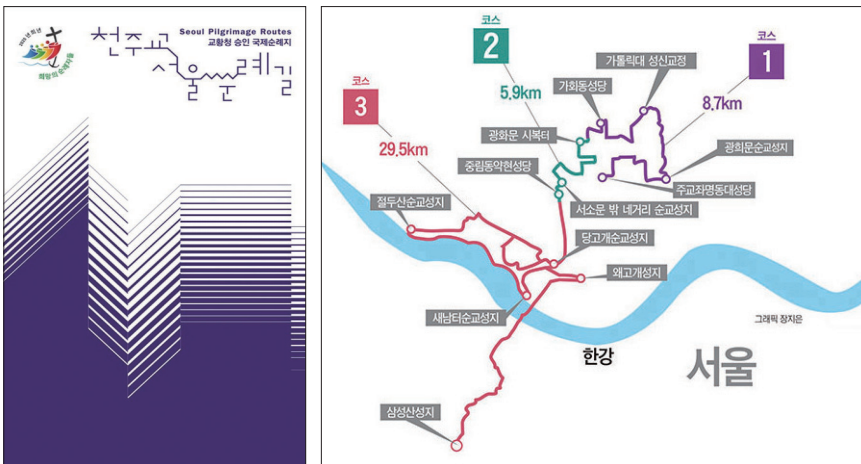
일 정 : 2025년 9월 27일

내 용 : 순교자 전구 미사

장 소 : 절두산 성지

주 관 : 기획사무국 전략팀,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제작한 '천주교 순례길'과 순례길 지도 (가톨릭신문 2018.9.18. 기사)



선교

선교 1 2025 유스 페스티벌 “희희희”

젊은이들 축제인 “희(기쁨 喜), 희(빛날 熙), 희(바랄 希)”를 진행합니다. 본 축제는 대회 영성, 교리교육, 유스 페스티벌, 고해성사, 전야 행사(Vigil) 및 미사 등 세계청년대회 본 대회기간 행사의 기본 흐름을 담아 작은 규모로 재현함으로써 WYD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2027 서울 WYD를 미리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2027 서울 WYD 영성가치로 정한 ‘진리’, ‘평화’, ‘사랑’을 행사 장소와 내용에 반영하여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의 가치를 유쾌하고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축성 생활의 해’를 맞이하여 젊은이들에게 수도자들과의 만남을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 정 : 2025년 5월 10일(토)~11일(일)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진리), 동성중·고등학교(평화), 혜화동 거리(사랑)

주 관 : 기획사무국 행사2팀, 행사3팀

5/10(토)			5/11(일)		
시간	제목	장소	시간	제목	장소
13:00 ~ 15:00	OSEYO 콘서트 I	청소년회관 대강당	09:00 ~ 10:00	고해성사	신학교 운동장
16:00 ~ 18:00	코이노니아	청소년회관 대강당	10:00 ~ 12:00	성소주일 미사 - 젊은이여 희망을 증언하라	신학교 운동장
19:00 ~ 20:30	주교님과 만남	신학교 운동장	13:00 ~ 15:00	OSEYO 콘서트 II	청소년회관 대강당
21:00 ~ 24:00	전야행사(Vigil)	신학교 운동장	15:00 ~ 17:00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거리무대

선교 2 2027 서울 WYD 주제성구 묵상전

✝
영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갤러리 1898에서 가톨릭 청년 미술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청년 작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을 중심으로 2027 서울 WYD 주제성구에 대한 묵상전이 열립니다.

- 일 정 : 2025년 7월 4일(금)~13일(일)
- 장 소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갤러리 1898 제2전시실
- 주 관 : 기획사무국 문화예술팀

선교 3 2027 서울 WYD 홍보를 위한 음악회

2027 서울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대중들에게 세계청년대회를 홍보하고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7 서울 WYD 홍보를 위한 음악회를 엽니다. 음악회를 통해 가톨릭이 지닌 영적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전하고 신자들에게는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흐(J.S.Bach)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담긴 앨범

- 주 제 : 바흐의 성탄 오라토리오
-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 장 소 : 혜화동성당
- 담 당 : 기획사무국 대외협력팀

선교 4 2027 서울 WYD 홍보를 위한 연극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면서 가톨릭 청년들뿐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전해줌으로써 WYD 홍보와 동시에 선교적 열매를 맺고자 가톨릭 연극협회와 함께 연극 공연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극명 : 네 번째 동방박사(예정)

일 시 : 2025년 12월 24일(수)~25일(목), '명동. 겨울을 밝히다' 축제 내

장 소 :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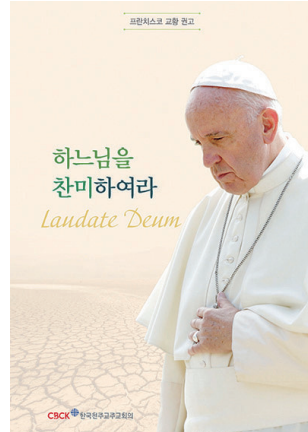
담 당 : 기획사무국 대외협력팀

2 사랑

생태

생태 1 '온 세상에 생명의 숨을' 캠페인

2027 서울 WYD는 지난 파나마와 리스본 WYD의 정신을 이어받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2015)와 후속 회칙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2023)에 담긴 실천적 제안을 구체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기간에 산림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무 심기'를 실천하고 아울러 각 본당과 가정에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WYD가 개최되는 2027년에도 친환경적인 대회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 세계 청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체험부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① '나무 심기' 프로젝트

난지도는 1978년부터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모여 세워진 쓰레기 산입니다. 이후 서울시는 매립지 폐쇄와 함께 해당 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녹지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나무위키)

이에 2027 서울 WYD 젊은이들은 '인간이 훼손한 땅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영성 아래 월드컵 공원에 지속적으로 '나무 심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일 정 : 2025년 상반기~2027년 상반기(매년 상, 하반기 예정)

1차 나무 심기-2025년 4월 26일(토) 13:30~16:30

2차 나무 심기-2025년 9월 20일(토) 13:30~16:30

장 소 :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주 관 : 기획사무국 전략팀

② 젊은이들을 위한 '평화의 길'과 '평화를 위한 기도 숲' 조성 프로젝트



난지생태습지원(서울특별시 한강공원 홈페이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산책길 끝에는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묘목을 심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전 세계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평화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 숲'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월드컵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난지한강공원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색깔의 나무들을 심어 길을 꾸미고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란 무엇인지 성찰하고 되새길 수 있는 산책길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함께

③ '찬미 받으소서' 생태 영성 캠페인



'찬미 받으소서'에서 제시하는 통합적 인간 발전을 위한 생태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구 내 가정과 본당,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 영성 제안서를 마련합니다. 이 제안서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과 과도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 재활용 방법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과정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찬미 받으소서'를 연구하고 캠페인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평화

공동선

공동선1 WYD를 향한 '사랑의 동행'

2027 서울 WYD가 대회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은 '개방성, 무상성, 연대성'입니다. 이 가운데 '연대성'은 가난한 지역 교회 공동체 청년들을 돕고 그들과 연대하여 함께 하는 대회를 만든다는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이에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가난한 지역의 교구에 편지를 보내어 연대의 뜻을 먼저 밝히고, 이에 응답한 교구들에 WYD 홍보대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그곳 청년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몇몇을 2027 서울 WYD에 무상으로 초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와 탄압으로 WYD에 참여할 수 없는 국가의 가톨릭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WYD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황청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도움을 받아 연대할 예정입니다.

방문 예정지 : 방글라데시 라즈샤히 교구, 캄보디아 바탐방 교구, 콤포참 교구, 요르단, 몽골 울란바토르

주 관 : 조직위원회 국제협력팀

공동선2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연탄 봉사 활동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 2016)을 반포하시면서 해마다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지낼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울러 '세계 젊은이의 날'을 그 다음 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지내기에 연중 제33주간을 전후로 젊은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5-노원지구와 함께 '사랑의 연탄 봉사'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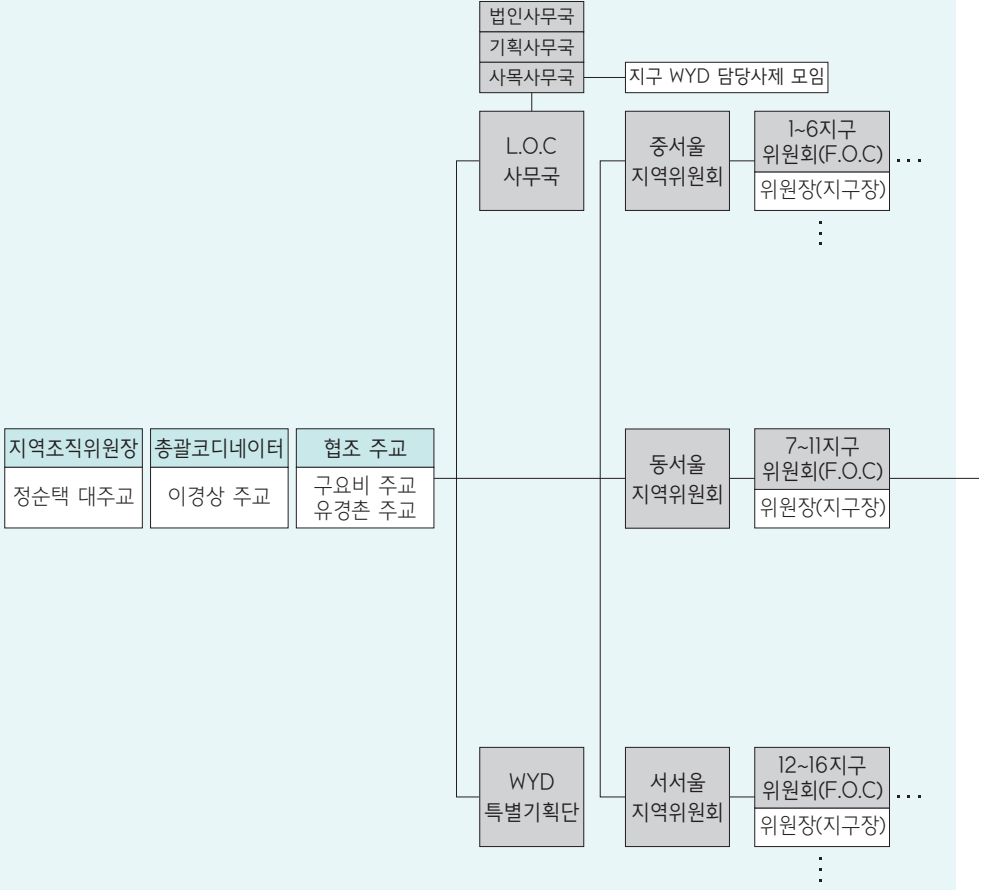


일 정 : 2025년 11월 22일(토)

장 소 : 5지구 노원-상계지역

주 관 : 기획사무국, 노원상계 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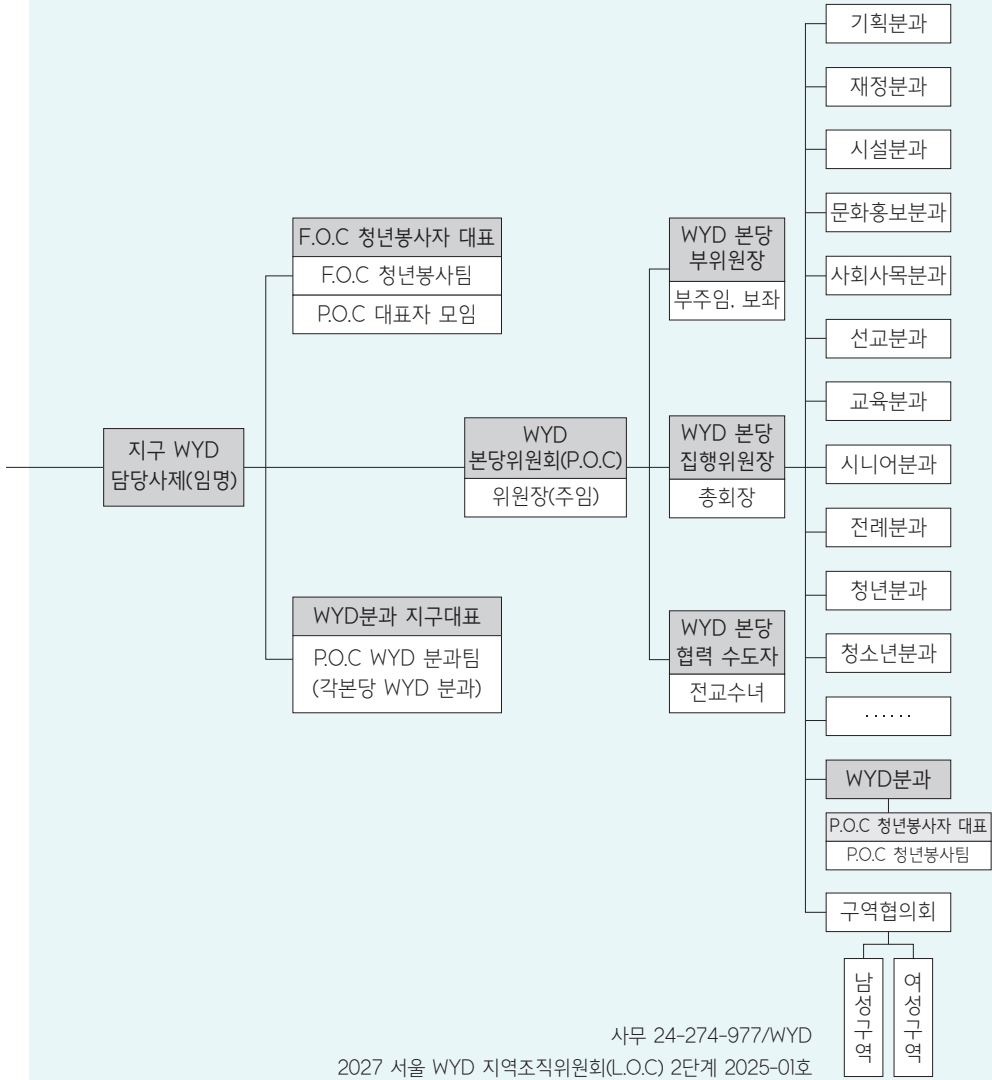
2단계 2027 서울 WYD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지역조직위원회 세부 조직도



L.O.C (Local Organizing Committee) = 지역조직위원회
 R.O.C (Regional Organizing Committee) = 지역위원회
 F.O.C (Forane Organizing Committee) = 지구위원회
 P.O.C (Parish Organizing Committee) = 본당위원회

L.O.C

R.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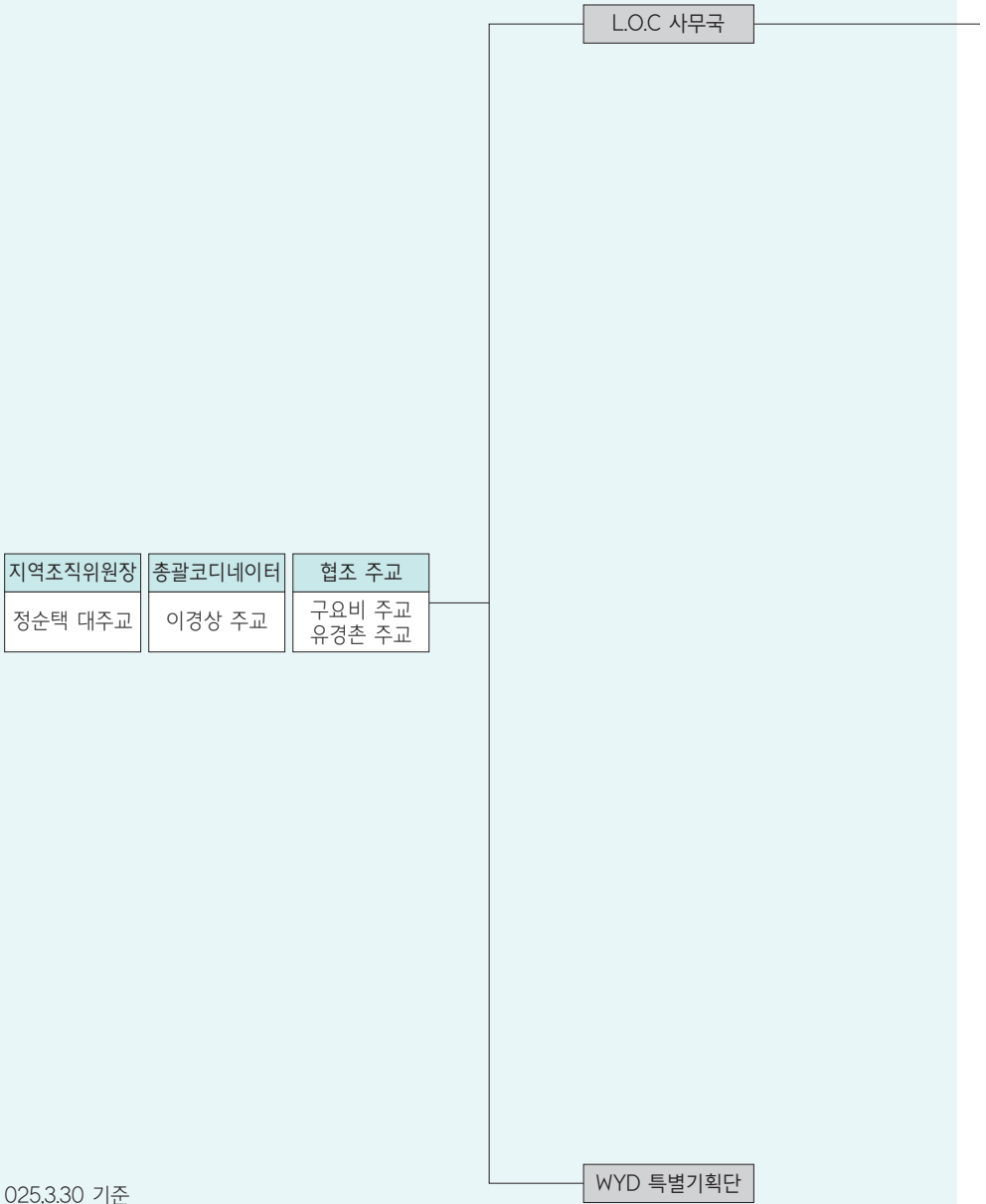
사무 24-274-977/WYD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L.O.C) 2단계 2025-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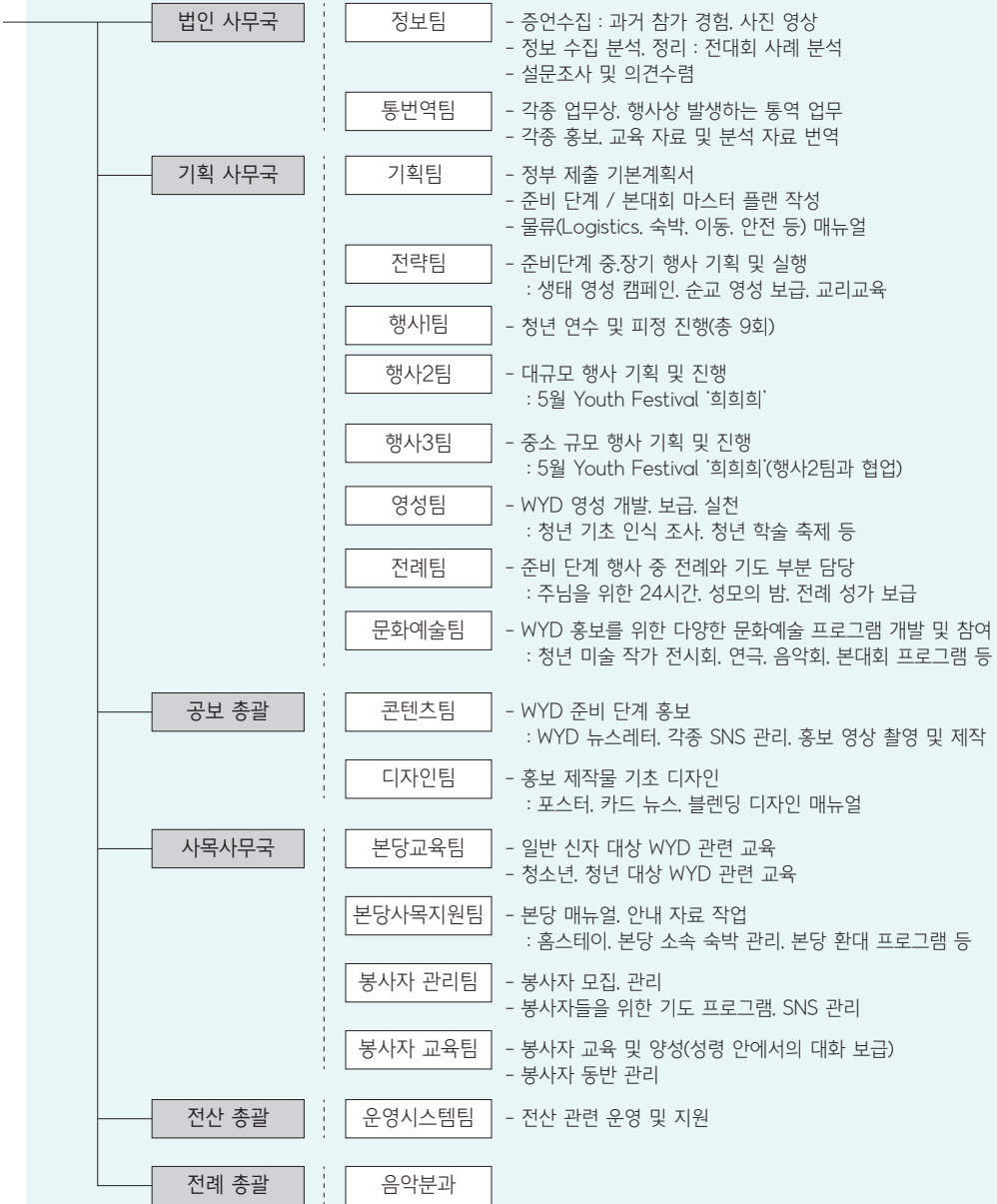
F.O.C

P.O.C

2027 서울 WYD 준비단계 봉사회 조직도



025.3.30 기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영성 목표와 활동

펴낸 날 | 2025년 00월 00일 교회 인가
2025년 00월 00일 초판 1쇄

펴낸 이 | 정순택

캘 리 | 유임봉

편 집 | 임아람

펴낸 곳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4층 WYD 지역조직위원회 사무국
wydseoul2027@wydseoul.org
<https://wydseoul.org>

인 쇄 | 가톨릭출판사

I S B N 070-00-0000-000-0 00000

비매품

성경 ·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이 책에 대한 저작권과 판권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영광을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